

#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 정부 공모사업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곳에 전북 유일 선정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 국경재단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곳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지방시대 9대 정책)인 '문화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개 승인 지자체에서는 2024년 한해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연말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지역별로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크게 앵커사업(핵심사업)과 기본사업으로 구성되며, 시는 5개의 앵커사업과 4개의 기본사업으로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주요 앵커사업은 △문화산업의 소부장 집적화(문화예술의 생산, 산업 전개를 위한 공간, 장비, 재표 확보) △문화산업 플랫폼 구축(문화산업 분야로 진출 위한 경로 개설 및 상품 마케팅 지원 등) △전통문화기반 미래 문화산업 발굴(관소리 유통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이다.

시는 예비사업 1년간 오는 2025년 본격적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문화재단을 주축으로 팔복동 일원에서 행해지는 아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아간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근 탄소기업과 연계해 탄소 활용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산단 주변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달 중 발표될 현장심사와 문체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승인됐다. /김옥기 기자

로 팔복동 일원에서 행해지는 아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아간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근 탄소기업과 연계해 탄소 활용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산단 주변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달 중 발표될 현장심사와 문체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승인됐다. /김옥기 기자

로 팔복동 일원에서 행해지는 아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아간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근 탄소기업과 연계해 탄소 활용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산단 주변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달 중 발표될 현장심사와 문체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승인됐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청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유공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주시 유공시민 시상식'을 개최했다.

## 전주시 유공시민 시상식 개최

### 지역 발전 공헌 시민·공무원 수상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청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유공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주시 유공시민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선그룹 '차오름'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주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올해 전주 유공시민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유공자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유공자 △감사서 발송 유공기관 및 유공시민 등이 선정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창의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열정적인 업무처리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2023년 한 해 동안 전주 발전을 위해 여러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시민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갑질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힘과 열망을 모아 강한 경제도시 건설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농촌진흥청, 5월 우루과이에 협력 연구실 개소

### 농업생명공학 분야 양해각서 체결로 농산업체 해외 진출 기회 확대·식량안보 강화기여 등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6월 우루과이와의 농업생명공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4년 5월 우루과이 현지에서 협력 연구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국립농업연구청(INIA)에 문을 여는 협력 연구실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농업형질 개선 유전자 및 육종 소재 개발 협력 연구과제와 국내 농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협력과제로는 가물 내성 콩 종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기능성 콩 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3년 6월 22일에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방문해 이산 알피 기획예산처장, 페르난도 마토스 축산농업수산부장관과 함께 양국의 농업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3차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6월 우루과이와의 농업생명공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4년 5월 우루과이 현지에서 협력 연구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 연구실 설치, 공동연구 추진, 전문가 파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협력 연구실 설치, 공동연구 추

진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체결식에는 이은철 주우루과이 한국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와 우루과이 관련 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2022년 9월 당시 우루과이 기획예산처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미 순방 시 관련 협력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우루과이는 정책적으로 한국과 농업생명 공학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민간 영역의 농업생명 산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식량작물 종자를 개발하고, 생명 공학 기술을 대두, 옥수수를 비롯해 다양한 식량작물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세계적 종자 시장 진출을 넓혀나갈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루과이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 10여 명은 완산구 평화동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찾아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전달된 생필품은 공단 체육공원운영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



금으로 구입했다.

박만희 체육공원운영부장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예수병원 재활센터, 정읍시 표창장 수상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정읍시(시장 이학수)에서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만들기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예수병원 재활센터에 수여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재활센터는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김은실 재활의학과 과장의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의료상담을 통해 올바른 재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애의 이해와 정확한 치료를 위한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실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읍시 지역 내 의료복지 실현과 연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기관 선정

### 5년 연속 선정... 최고 등급 달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 2023년 평가 최고 등급인 'LEVEL 5'를 달성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행되었다.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지역내 노후 취약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기구 교체 등 재능기부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3년에는 계절별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ESG형 축제(K-POP댄스 경연대회, 지역물놀이축제, 가을콘서트)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친환경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완주군 독거가구 탄소매트 나눔 및 전기설비 개선 봉사, 성탄맞이 지역아동 초청 산타구름이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의 소통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상생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시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누구나 행복한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가스안전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全北 도시가스株式会社**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